

#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 심리적 특성\*

- 초범과 재범군의 비교 -

Psycho-Social Comparison among First Time Offenders and Repeated Offenders on Probation\*

이희정(Hee-jung Lee)<sup>1)</sup>

이성철(Sung Chil Lee)<sup>2)</sup>

## ABSTRACT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 method were used to test psycho-social comparison among first time offenders and repeated offenders.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chi-square. Differences between first time offenders and repeated offenders were that there were more male offenders than female offenders, and violent and theft offenders were more than sex offenders fraud and traffic offenders; early starters were more repeated offenders than late starters; there were some variables such as runaway of home, parents' caring attitude, school drop out and maladjustment affecting in repeated offenses; developmental environment of repeated offenders were more negative than first time offenders. Therefore, intervention and prevention program development of good parenting and schooling and forensic counseling focused on optimal developmental environment is needed.

**Key Words** : 초범 보호관찰 청소년(first time offenders on Probation), 재범 보호관찰 청소년(repeated offenders on Probation), 범죄 예방 프로그램 개발(intervention and prevention program development of good parenting and schooling).

## I. 서론

현재 판사가 보호관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사전 평가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판사가 어떤 청소년에게 어느 정도의 조건과 감독을 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청소년의 미래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타당성 있는 연구가 더욱

\* 본 연구가 가능하도록 협약을 지원해 주신 전 서울보호관찰소 정하영 소장님, 2004년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이종한 회장님, 한림대학교 조은경 교수님과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님 및 자료수집을 실시한 주봉림, 최소영, 이해선 범죄심리사, 서울보호관찰소 이 경 주임 등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sup>1)</sup> 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전공 전임강사

<sup>2)</sup>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사무관

**Corresponding Author** : Sung Chil Lee, Senior Probation Officer, Chunchon Probation & Parole Office, 1st Floor Chunchon Local Corporate Office, Hupyung 1 Dong 240-3 Chunchon City Kangwon-Do 200-957, Korea E-mail : star7s@hanmail.net

관심을 끌고 있다.

더욱 적절한 서비스와 처우를 부가하려면 범죄 유형 및 성별 또는 청소년의 사회환경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 대상자 중심의 교육과 중재 프로그램이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그들의 범죄적 특질을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이들을 선도하고 교화하는데 효과성있는 관리방안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두가지 상반되는 입장으로는 Gottfredson과 Hirschi의 일반론(*general theory*)과 발달론(*developmental theory*)이 존재하는데, Gottfredson과 Hirschi는 범죄행위가 가져올 장기적인 손해를 고려하는 능력에 있어서의 개인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 통제력의 유무와 사회유대 여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박정선, 2004). Moffitt의 발달론(1993)은 비행청소년들의 어렸을 때의 경험을 중시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를 중시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 이론이다. 발달이론가들은 청소년기와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문제행동과 비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 단순한 지속 이외에 그러한 아동이 어떻게 하여 더욱 심각한 범죄자로 발전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또한 어떤 아동은 무슨 이유로 비행을 중단하여 평범한 아이로 되는가를 설명하고자 했다.

발달론에서는 그러한 비행발전과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일한 요인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과 사회유대이론에서 강조되었던 다양한 사회 환경요인들을 강조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예를들면, Thornberry(1996)는 상호작용이론에서 비행의 원인을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상에서 연령에 따라 비행의 원

인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가에 주목했다. 그는 청소년시기를 초기(11-13세), 중기(15-16세), 후기(18-20세)로 구분하였는데,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유대가 비행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중기를 거쳐 후기에 이룰수록 부모의 영향력은 작아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행을 하게 되면 부모와의 관계가 약화되기도 한다고 주장해 부모와의 애착과 비행의 상호관계를 주장했다. 그는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비행과의 상호 영양의 관계도 주장했다.

한편, Sampson과 Laub(1993)은 비행은 비공식적 사회통제 혹은 유대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들에 따르면 어려서 문제행동을 보였던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혹은 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그들의 어린시절 경험들이 사회와의 유대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어려서 문제성향을 보인 아이들은 부모와의 유대가 약화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며, 친구들과의 교우관계도 원만치 못해 점차 비행청소년, 더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누적적 지속(*cumulative continuity*)’이라고 했다.

Sampson과 Laub(1993)은 청소년기의 비행, 그리고 더 나아가 성인기의 범죄여부를 설명하는 요인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나 학교·직업과 같은 제도상의 사회유대라고 했다. 즉 아무리 어려서 문제성향을 보였던 아이들도 사회유대의 약화 혹은 강화에 따라 비행청소년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비행을 중단하여 정상인으로 되돌아가기도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한편, Moffitt(1993)는 어린시절 가정에서의 부적절한 훈육과 신경심리계의 손상의 이유로 충동적이고 언어·학습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아이들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

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어려서의 문제 성향과 행동으로 성장기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나 학교적응, 취업에의 실패, 그리고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그녀도 어린시절 가정환경과 문제성향 및 문제행동을 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 중시했지만 그것과 청소년시기의 비행과의 관계 사이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요인을 강조했다. Moffitt(1993)는 비행청소년집단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그 하나는 어려서부터 문제성향과 문제행동을 보인 소위 '초기진입자들(early starters)'로 그들은 생애지속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폭력 등 심각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는데, 이들은 비행청소년들 중 소수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이 포함되는 다른 부류는 어려서 문제성향을 보이지는 않은 '후기진입자들(late-starters)'로 이들은 청소년기에 부모의 감독미비나 비행친구에 노출됨으로써 모방 등을 통해 비행을 저지르는 한시적인 비행청소년들이라고 했다(김준호 등, 2003). 따라서 청소년 후기에 처음 비행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 이종적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되고, 보다 쉽게 범죄에서 은퇴할 수 있게 된다.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중단하는 집단과 계속적인 재범을 행하는 집단은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유성경(2000)은 청소년 탈비행과 관련된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에 대한 탐색을 연구한 결과 위험 요소의 경우 가정요인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으며, 보호요소로는 친화력 있는 인간관계, 학교교육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올바른 행동에 대한 바른 기준이라고 하였다. 김준호와 이순래(1995)는 가족해체 여부, 공범 친구 또는 무위도식하는 친구의 유무, 최초의 범죄 연령, 성장 환경 및 주거 환경이 재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았다. 이미숙과 고성혜(2003)은

중퇴경험 여부, 흡연 및 무단결석과 같은 학교환경에 대한 적응 정도를 재범과 관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나이, 성별, 중퇴경험, 이전 전과, 약물사범 여부와 처분 내용이 재범관련 변인으로 본다(최인섭 · 진수명, 2002).

이수정 · 이민식 · 홍영오와 김양근(2005)은 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및 처분유형, 공범의 수, 동종 전과의 유무, 가족 결손의 정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에 대한 순응정도, 범행에 대한 책임 수용 여부, 신고서 작성 태도와 보호관찰관 질문에 답변하는 태도 및 직업에 대한 신고사항 일치여부라고 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인구학적 및 사회환경적 특성과 이에 따른 사회 심리적 특성들은 재범집단과 초범집단을 변별하는 변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여 이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범 청소년 집단과 재범 청소년 집단의 사회 심리적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를 탐색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 심리적 특성은 구체적으로 비행 청소년의 성, 범죄유형, 초범연령, 발달환경 중 가정관련 변인, 학교 관련 변인과 친구관련 변인에 대한 그들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뜻하며, 초범 청소년과 재범 청소년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표 1〉 분석에 사용된 보호관찰소 면접 자료 내역

신상정보	처분 : 처분의 종류 성 별 나 이
범행사항	죄명 : 본 건의 죄명(사범) 초범연령
가정환경 변인	가출경험 여부 부모의 양육태도 : 전반적 양육태도에 대한 평가
학교관련 변인	중퇴 경험 학교에서의 비행사실(불량행위) 경험 정도
친구관련 변인	현재 친하게 지내는 친구 비행친구와의 접촉 빈도
성장 발달 변인	유아기,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의 특별한 경험과 기억에 대한 평가

2004년 7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심층면접을 통하여 초기상담을 실시한 보호관찰 청소년 112명이었다. 1차 예비 개별 면접을 통하여 심층면접을 위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심층 면접 양식을 개발하였으며, 면접 방법을 숙지한 범죄 심리사 4명이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후 면접 양식에 기록된 면접 내용에 대한 분석과 보호관찰 통합 정보 시스템(PIIS)에 입력되어 있는 사회 인구학적 정보와 범죄경력조사를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 범행 사항, 가정, 학교, 친구 및 성장 발달 부분으로 나누어 범죄심리사와 보호관찰관 및 본 연구자가 공동으로 내용 분석과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표 1〉 참조).

본 연구에서 재범자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자가 아니라, 초기상담과 범죄경력조회 결과 기소유예 이상의 범죄경력이 2건 이상이 있는 자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최소한 당해 보호관찰 사건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당해 보호관찰 사건이 첫 번째 범행인 경우는 재범자 집단이 아닌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면담 내용에 대한 분석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단계에서는 보호관찰관과 본 연구자와 훈련된 범죄심리 전공 대학원생이 함께 면담 기록에 나타난 내용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개념적 포괄성과 상호배타성에 의거하여 단계적으로 주제를 도출해 가는 유목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때 분석의 단위는 의미있는 내용으로 간주되는 단어, 문구, 문장, 문단 등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호관찰관과 본 연구자 및 대학원생들은 키포인트론과 합의를 거친 결과, 양육태도와 관련된 범주(구타와 폭력, 과잉통제와 간섭, 무관심, 방임)의 준거, 학교 부적응 정도 중 불량행위에 관한 준거,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대한 준거, 유아기, 초등학교시기, 중학교 시기와 고등학교 시기별 발달환경 관련 준거를 도출하였다. 둘째 단계에서는 기록내용을 유목화의 틀에 따라 다시 분류해 넣는 부호화(coding)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관과 본 연구자에 의해 각기 진행되었는데, 일치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각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와 배제되어야 할 경우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의견을 재조정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분류된 응답내용의 정도를 부모의 양육태도와 발달 환경은 7점으로 불량행위 정도는 5점으로 비행 친구와의 접촉 빈도는 4점으로 척도화 하였다. 이렇게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로 전환한 이후 응답 패턴과 빈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범죄경력 조회를 통한 연구방법의 한계로 나타나는 문제로서, 범죄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상”으로 나타난 사항은 재범 통계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 및 초기 면접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았던 경우,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 사례수를 결과 부분에 제시하였다.

##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피면접자들은 2004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초기상담을 받게 된 112명이다. 이들에 대한 면접 결과지에 대한 내용분석과 현직 보호관찰관이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통합정보시스템(PIIS)에 입력되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정보와 이들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통하여 비교한 후, 선행연구결과를 통대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과 관련된다고 나타난 변인들을 중심으로 양적 분석을 통하여 초범 청소년과 재범 청소년을 비교하였다.

면접시간은 대개 2시간 정도였지만, 피면접자에 따라서는 1시간 반이나 3시간도 걸린 경우가 있어 다소의 편차가 있었다. 이러한 편차는 피면접자의 시간적 여유나 주변환경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였는데, 피면접자와 연구자의 친근감 형성을 위해서 걸린 시간의 차이도 있었다.

면접자는 보호관찰관 및 본 연구자와 경찰서에서 학교 폭력과 보호관찰소에서 비행 청소년에 대한 상담경험이 있는 범죄심리 전공 대학원생 2명이었으며, 면접 장소는 S 보호관찰소 내에 소재한 에스 홈 심리 상담센터의 개별 상담실 3 곳이었다. 상담 장소는 피면접자와 관계형성이 용이하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원형 테이블과 인테리어 장식용 소형 화분이 놓여져 있고, 편안한 의자가 제공되었다.

초기상담지에 기록된 면접 내용은 범죄 심리사 2명이 개별 변인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면접 내용에 대한 분석자간 일치도는 Pearson의 상관계수로 .89이었다.

인구학적 변인 및 발달환경 중 가정관련 변인, 학교 관련 변인, 친구 관련 변인에 대하여 초범군과 재범군간 차이를 t검증과  $\chi^2$  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절에서는 초범군과 재범군간의 성별, 범죄 유형별, 초범 연령별, 가정, 학교, 친구관련 변인과 전반적 발달 환경에 관한 비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성별 비교

<표 2>는 대상자 성별과 재범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성별에 따른 재범의 여부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재범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남자 중에는 69명이 재범을 했음에 비해, 27명은 재범을 하지 않았으나, 여자 중에는 6명만이 재범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 비교 (N=112)

집 단	남 성	여 성
초범(n= 37)	27(24.1)	10( 8.9)
재범(n= 75)	69(61.6)	6( 5.4)
합(n=112)	96(85.7)	16(14.3)

$\chi^2=7.32$   $p<.01$

### 2. 범죄 유형별 비교

<표 3>은 범죄유형과 재범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의 범죄유형은 보호관찰을 받게 된 본건의 유형을 의미한다. 범죄 유형중에 높은 재범율을 보인 것은 절도와 폭력이었고, 교통사건의 경우도 상당히 높은 재범율을 보여주고 있다( $p<.01$ ).

<표 3> 범죄유형별 비교 (N=104)

	폭력	절도	성폭력	사기	교통
초범(n= 36)	13(12.5)	17(16.3)	5(4.8)	0(0.0)	1(1.0)
재범(n= 68)	22(21.2)	35(33.7)	0(0.0)	5(4.8)	6(5.8)
합(n=104)	35(33.7)	52(50.0)	5(4.8)	5(4.8)	7(6.8)

$\chi^2=13.55$   $p<.01$

### 3. 초범 연령별 비교

<표 4>는 초범연령과 재범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소위 '범죄에 대한 발달이론적 관점'(developmental perspective on crime)을 취하는 진영에서 주장되는 여러 이론들 중에서도 '비행으로의 초기 진입자'(early starters)와 관련된 논의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각각 범죄 경력상 최초의 범죄를 중학교이하 시기에 저지른 집단과 고등학교기에 저지른 집단의 나이에서 저지른 집단간의 재범율의 차이를

<표 4> 초범 연령별 비교 (N=112)

	13-15세	16-18세	19-20세
초범(n= 37)	24(21.4)	10( 8.9)	3(2.7)
재범(n= 75)	50(44.6)	25(22.3)	0(0.0)
합(n=112)	74(66.0)	35(31.2)	3(2.7)

$\chi^2=6.41$   $p<.05$

살펴보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p<.05$ ). 즉 재범균일 수록 초범군에 비해 더 어린 시기에 범죄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가정관련 변인 비교

#### 1) 가출 경험 비교

<표 5>는 본 연구대상 청소년들이 가출경험과 재범여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재범군의 경우 가출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재범율이 20.5%에 비해, 가출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재범율은 약 50%에 육박하고 있다( $p<.05$ ). 초범 청소년의 경우, 가출로 인하여 갈 곳이 없고, 배가 고프게 되어 범죄 행동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재범 청소년의 경우 어쩔 수 없었다는 방어적 반응들이 나타났다.

<표 5> 가출경험 유무별 비교 (N=88)

집 단	없 음	있 음
초범(n=27)	14(15.9)	13(14.8)
재범(n=61)	18(20.5)	43(48.9)
합(n=88)	32(36.4)	56(63.7)

$\chi^2=4.04$   $p<.05$

#### 2) 부모의 양육태도 비교4

<표 6>은 대상자 부모의 양육태도와 재범과

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는 대상자와의 초기 면접시 상담자가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제중심 유목화 작업을 통하여 긍정적 양육태도는 민주형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는 구타와 폭력, 과잉통제와 간섭, 무관심과 무조건 허용을 나타냈으며, 면담 과정에 대한 부호화를 통하여 측정되었다. 재범군과 초범군 두 독립된 집단간에 대상자가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평균점수는 각각 4.97점과 3.60으로써 일반적으로 재범군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초범군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 < .01$ ). 양적 분석으로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초범 청소년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하여 불안과 우울감으로 표현하였다. 반면에 재범 청소년들은 우울한 표정(14%)이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거나(28.1%), 말하기를 꺼려하는 방어적 태도(23%)를 나타냈다.

<표 6> 부모의 양육태도 비교 (N=112)

	평균(표준편차)	t
초범(n=37)	3.60(2.17)	3.08**
재범(n=75)	4.97(1.72)	

\*\* $p < .01$

#### 4. 학교관련 변인 비교

##### 1) 중퇴 경험 비교

<표 7>은 대상자의 중퇴경험과 재범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중퇴경험은 그 경험의 유무로서 측정되어졌다. 한 가지 특이할만한 사항은 재범군 비재범군을 통틀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경우 그 상당수(대상자의 약43%)가 중퇴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p < .05$ ). 중퇴에 대한 느낌을 물어본 결과, 재범 청소년들의

<표 7> 중퇴 경험 비교 (N=106)

집 단	없 음	있 음
초범(n= 31)	23(21.7)	8( 7.5)
재범(n= 75)	38(35.8)	37(34.9)
합(n=106)	61(57.5)	45(42.4)

$\chi^2=4.97$   $p < .05$

경우, 학교에 가도 잠만 자게 되고(21%),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하거나(23%), 학교에 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33%) 이 나타났다.

##### 2) 학교 부적응 정도

<표 8>은 학교에서의 부적응행동 정도와 재범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에서의 부적응행동은 여러 가지로 개념화 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학교에서의 불량행위 경험과 관련하여 재개념화 하였다. 불량행위 경험이 없는 경우는 1점, 불량행위의 경우 3점, 아주 중대한 불량행위를 경험한 경우는 5점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양 집단간의 평균점수 차이인 0.76 점은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학교 부적응 비교 (N=112)

	평균(표준편차)	t
초범(n=37)	1.58(1.06)	2.98**
재범(n=75)	2.34(1.44)	

\*\* $p < .01$

#### 5. 친구관련 변인 비교

##### 1) 친한 친구 유무 여부

<표 9>는 현재 친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재범여부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

〈표 9〉 친한 친구 유무 여부 (N=106)

집 단	없 음	있 음
초범(n= 31)	3( 2.8)	28(26.4)
재범(n= 75)	9( 8.5)	66(62.3)
합(n=106)	12(11.3)	94(88.7)

$\chi^2=0.12$  n. s.

은 변인은 Gottfriedson과 Hirsch(1990)이 주장하고 있는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 채택된 변수이다. 그들은 비행친구나 동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질수록, 비행에 덜 빠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비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 냉랭하고 신경질적인 경향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비행자보다 준법적 친구든 비행 친구든 애착을 가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범군과 재범군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2) 비행 친구 접촉 비교

〈표 10〉은 과거에 사귀었던 비행친구와의 접촉빈도와 재범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 문항은 친구와 비행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검증되는 변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변인으로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초범 청소년들의 경우, 절대로 비행을 함께 저지른 공범을 만나지 않거나 이사를 가는 등 능동적 변화를 위한 재기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였고, 재범 청소년들의 경우, 비행 친구들과 접촉할 수

〈표 10〉 비행친구 접촉 비교 (N=106)

	평균(표준편차)	t
초범(n=31)	1.87(1.14)	n.s.(0.27)
재범(n=75)	1.93(0.98)	

밖에 없다는 응답도 많았는데(22%), 거주환경이나 함께 다니는 학교 친구 및 동네 친구들이기 때문에, 만나게 된다고 하였으며, 만나지만 친하게 지내지는 않는다는 응답(11%)도 있었으나 두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6. 성장 환경 변인 비교

〈표 11〉은 발달(성장)환경과 재범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각 발달환경별 평균점수를 통하여 산출되었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의 성장 환경이 초범군과 재범군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대체로 초범군과 재범군 모두 유아기 시절은 재범군과 초범군 모두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장난을 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다고 응답하였으나, 초등학교 시기부터는 재범군의 경우, 부모의 이혼으로 또는 가정폭력으로 힘들었다든지, 중학교 시기부터 더 본격적으로 학업에 흥미를 잃고 더 급속하게 비행 행위로 빠졌으며, 고등학교 시기에는 계속적으로 학업에 어려움이 많거나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중퇴하고 나쁜 친구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게 되는 것과 관련된 언급이 빈번하였다. 이에 대한 청소년의 감정에 대하여 초범군은 자신에 대한 비난(21%), 부모님에 대한 실망을 준 것에 대한 자신으로 향한 자책(12%), 우울과(5%) 재범군은 소진감(12%)과 방어적 태도(10%) 등을 나타냈다.

〈표 11〉 성장 환경별 비교 (N=106)

집 단	유아기	초등학교 시기	중학교 시기	고등학교 시기
초범(n=31)	3.54(0.83)	3.65(0.98)	2.84(0.89)	2.51(1.02)
재범(n=75)	3.74(0.67)	3.09(0.67)	2.16(0.67)	2.02(0.84)
t	1.20	-3.35***	-4.39***	-2.13*

\* $p<.05$  \*\* $p<.01$  \*\*\* $p<.001$



#### IV. 논 의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이론 중, 일반이론에서 주장하는 자기통제력과 발달이론에서 주장하는 부모와의 애착 또는 유대,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재범이나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반구조화된 면접을 통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한 후 유목에 대한 부호화 과정을 거쳐 조사하였으며, 기타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결혼, 초범연령, 중퇴경험, 가출경험 및 성장환경 변인에 대하여 탐색하여 보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 위한 논의점을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성별과 범죄율의 관계는 오랫동안 경험적 연구결과에서 지지되고 있듯이 남성의 범죄율이 여성의 범죄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이는 재범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여왔다. 이러한 논의는 남성과 여성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남성과 여성의 범행발생에 상이한 인과관계가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Silverthorn, Frick, & Reynolds, 2001). 이러한 연구결과는 보호관찰 실무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 대상자의 경우 상이한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차후 재범예측모델의 구성에 있어, 성인과 소년을 구분하여 예측모델을 구성함은 물론 남성과 여성의 개별 예측모델을 구성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발달단계의 초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수록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결과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분류와 재범방지 프로그램 개발에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Frick, 2004). 즉 어린시절부터 범죄를 저지르

기 시작한 대상자의 경우 그만큼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의 수준을 증가시켜서 집중감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반면, 고등학교 후거나 청년기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청소년의 경우 상당히 낮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제재 조치를 완화하거나 학업사항이나 청소년들의 태도에 따라 보호관찰의 기간이나 종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정된 보호관찰관 수와 자원을 고려해 볼때, 힘의 균형분배와 효과적 재범방지를 위하여 관찰 정도의 경중을 결정하는 것도 재범방지에 필요할 것이다.

세째, 가출 경험과 관련하여 실무상에서도 상당수의 재범 청소년 대상자의 경우 가출의 문제는 준수사항위반 및 출석 불응으로 이어지고 있어, 가출의 문제는 보호관찰범위반으로 대표되는 준수사항 위반 등의 기술적인 문제(technical violation) 외에도, 더 나아가 이들이 가출 기간동안 새로운 범죄(new offense)를 저지르는 이중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실제 대상자 관리에서도 그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김지혜, 2003). 가출과 함께 절도나 폭력 범죄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쉼터의 활성화 및 가출 청소년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범죄로 빠지지 않게 하는 예방책이 될 수 있겠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비교 결과는 기존의 많은 범죄학 이론에서도 주장되어 검증되어진 것으로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경우도 개별 청소년이 인지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그들의 재범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무에서도 대상자 일인만을 중심으로 한 개입(client centered intevention) 보다는 대상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개입(family centered intevention)으로 그 범위를 확장

시킬 필요가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으며,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개시교육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정일환·최경희, 1995)과 보호자에 대한 초기상담을 더욱 강화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청소년의 경우 그들 시간의 상당부분을 학교와 관련된 영역에서 보내게 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공교육체계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 비행하위문화와의 접촉, 여가시간 증가로 인한 범죄기회의 확대, 학교체계로부터 행사되는 통제의 부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더 많은 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증대되게 된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중퇴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좌절감이나 낙인감, 수치심 등은 재범의 위험성을 배가 시킬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Frick, Cornell, Bodin, Dane, & Barry, 2003)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교에서의 부적응 행동과 관련하여 보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경우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부적응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단 이들 중에서도 재범군에 속하는 대상자들의 경우 학교에서 사소한 불량행위로 측정되어지는 행위보다는 다소 심각성이 있는 행위들을 좀 더 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러한 학교부적응 행동의 문제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과 일정부분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볼 때, 보호관찰소와 개별 학교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은 충분한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이순래, 2002).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보호관찰관이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유무형적 자원의 개발이 요구된다.

일곱째, 성장 환경에 관한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발달 이론적 관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 비행의 발생에 초등기와 중등기의 발달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재범자들 중에 초등학교기의 환경이 긍정적이지 못했다고 평가받은 사람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에 비해 더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346, p<.001$ ) 또한 그 단계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보면 중등기, 초등기, 고등기 순으로 나타났고, 유아기의 평균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령기의 사회화와 발달환경이 중요함을 암시해 주는 것(김준호·김선애, 2003)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재범자에 대한 기존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집중보호관찰 등 감시감독을 통한 통제위주의 방법으로부터 재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범죄 유형이나 재범자 특성에 적합한 고위험군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보호관찰 과정에서도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의 성장과정이나 가족관계에 초점을 맞춘 가족 치료적 접근(가족치료 연구모임(역), 1996)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족 결손력을 높이고 가족간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그들의 부모 양육방법을 증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역시 보호관찰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가족치료 연구모임(역)(1996). *단기가족치료 : 해결중심으로 되어가기*. 서울 : 하나의학사.

- 김준호·노성호·이성식(2003). *청소년 비행론*. 서울 : 청목출판사.
- 김준호·이순래(1995).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의 전이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김선애(2003).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종단적 연구(2001-2002년). *한국청소년연구*, 14(2), 5-47.
- 김지혜(2003). 가출 청소년의 비행 경험에 대한 해석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99-121.
- 노성호(1995). 범죄경력과 비행 시기에 따른 비행원인의 고찰. *형사정책연구*, 6(3), 11-34.
- 민수홍(1996). *비행의 조기예측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정선(2004). *소년범의 범죄화 과정 및 보호방안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유성경(2000). 비행 청소년 탈 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학 연구*, 38(3), 81-108.
- 이미숙·고성혜(2003). *비행청소년과 가정폭력*. 서울 특별시·자녀안심 운동 서울협의회.
- 이성철(2003). *한국보호관찰의현황과 과제*.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수정·이민식·홍영오·김양곤(2005). 보호관찰 분류지침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4(1), 141-165.
- 이순래(2002).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일환·최경희(1995).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부모교육의 활성화 방안. *법정연구*, 3, 197-224.
- 정진희·전숙영(2003). *비행소년의 생활세계*. 서울특별시·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 최인섭·진수명(2002).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Frick, P.(2004). Integrating research on temperament and childhood psychopathology : Its pitfalls and promise.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3(1), 2-7.
- Frick, P., Cornell, A., Bodin, S., Dane, H., & Barry, C. (2003).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developmental pathways to severe conduct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246-260.
- Gottfredson, M., & Hirschi, T.(1986). The true value of lambda would appear to be sero : An essay on career criminals, criminal careers, selective incapacitation, cohort studies, and related topics. *Criminology*, 24, 213-234.
- Gottfredson, M.,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 Moffitt, T. E.(1990). Juvenile delinquency and attention-deficit disorder : Developmental trajectories from age 3 to 15. *Child Development*, 62, 893-910.
- Moffitt, T. E.(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 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674-701.
- Patterson, G. R.(1982). *Coercive Family Progress*. Eugene, OP : Castalia.
- Patterson, G., Reid, J., & Sodian, B.(1988). *Antisocial boys*. Eugene, OR : Castalia.
- Samson, R. J., & J. H. Laub.(1993). *Crime in the making : Pathway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Silverthorn, P., Frick, P., & Reynolds, R.(2001). Timing of onset and correlates of sever conduct problems in adjudicated girls and boy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3(3), 171-181.
- Thornberry, T. P.(1996). *Delinquency and Crime : Empirical Support for Interaction Theory : a review of liter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년 6월 30일 투고 : 2005년 9월 12일 채택